

68호, 2007,8

책을 열며 / 다시 평화, 우리 민족의 영원한 평화를! 다시 평화, 우리 민족의 영원한 평화를! / 문규현

특집 / 한반도 평화협정과 통일 한반도 평화협정과 통일 / 김진환

특집 /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 김종일

사람 / 평통사가 꽃보다 아름답다 - 전북평통사 박영천 회원 / 정동석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강화에서 역사와 현재를 만나다 / 윤영일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나눔의 집에 다녀와서 노철성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영화 우리학교를 보고 / 이종일

책을 열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실현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상임대표 문규현

“완전한 평화는 인간에게 어울리고 사나운 분노는 야수의 몫이다.”

‘평화’가 뭐지? 세삼 궁금해서 이 자료 저 자료 넘겨다보는데,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했다는 이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녕 스스로를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존재 방향, 끊임없는 지향점은 평화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꽤 됩니다. 그 중 아돌프 히틀러는 단연코 맨 앞 순위에 있습니다. 그 자는 “인류는 영구한 투쟁 속에서 강해졌으며, 평화가 영구히 계속되면 모두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자가 불러온 인류사적 비극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자의 말로가 어찌되었는지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히틀러는 인류사의 괴물이랄 수 있습니다.

분쟁과 갈등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나라와 지역에 미국이 있고 미군이 있습니다. 분노를 포식해야 지탱 가능한 사나운 야수처럼 말입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행태는 아돌프 히틀러의 말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신들이 걸으로 내세우는 말과는 달리 미국은 평화가 두렵고, 평화를 추구하면 멸망하고 말리라는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힌 가여운 존재처럼 보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아프간에 피랍된 한국인 22명이 마침내 석방된다는 기쁜 소식을 간절히 기다려 보지만, 어디에도 그런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아프간 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미국이 계속해서 침묵하고 탈레반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피랍 사태에는 여러 원인과 배경들이 있겠지만 미군의 아프간 점령과 그에 맹목적으로 추종한 한국군 파병이 이 비극의 주범이요 핵심입니다.

어제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4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전쟁이 멈춰진 상태에 살고 있지 평화체제를 얻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야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1989년 평양청년대축전에 참가한 임수경과 함께 판문점을 통과해서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자 했을 때, 사실 처음 계획한 날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이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을 상징하는 날에 판문점을 넘어섬으로써 평화와 자주, 통일의 의지를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8월 15일로 날을 바꾸어 분단선을 넘어섰고, 그 뒤에 남북정상 회담도 이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을 오가는 나뭇 가슴 벅찬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있지 못한 완고하고 냉엄한 현실 앞에선 답답할 따름입니다. 정부가 평화협정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지만 정작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은 슬쩍 뒷전으로 감추는 식의 방안이라니 북한의 반발은 불 보듯 환합니다. 판문점 북남 경계선을 넘어 남쪽 구역으로 들어섰을 때 우리 앞에 먼저 다가선 자들은 미군이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뼈저리게 알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여하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평화체제로 가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방부는 국방예산을 확대하고, 주한미군 또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 거점 군

사기지를 남한 곳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불길한 전쟁 기운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평화가 영구히 계속되면 모두가 멸망할 것”이라는 히틀러의 말을 신조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군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불모로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평화라도 화려한 전쟁보다 품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해가 닥칠까봐 두려워서 평화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인간의 완전한 본성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남북 민족이 함께,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누리고 싶습니다.

함께 갑시다. 우리 이 길을!

△ 새만금을 지키려는 투쟁을 기념하는 매향비 앞에 홍근수 대표와 함께 선 문규현 상임대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7월 18~20일, 베이징)에서 ‘2.13합의’의 첫 단계 조치-북한의 핵시설 폐쇄·봉인, 중유 5만톤 대북 제공 등-이행을 평가하고, 다음 단계 조치들에 대해 토의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의 포럼(이하 가칭 ‘한반도평화회담’) 구성도 비로소 한 고개를 넘어섰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고개는 많이 남아 있다. 8월에 열릴 5개 실무그룹 회담부터 6자회담 진전을 가로막을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문 열기

크게 두 가지 쟁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북한이 불능화(disabling) 단계에서 신고하고 포기해야 할 핵프로그램과 핵시설의 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경수로 제공 시기와 관련된 것이다.

첫째, 북한은 플루토늄핵무기프로그램과 과거 IAEA에 신고했던 핵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신고하거나 불능화 할 대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고, 미국은 자신이 의혹을 제기했던 우라늄핵무기프로그램의 신고와 관련시설 불능화를 요구할 수 있다.2)

둘째, 북한은 2.13합의 당시 “참가국은 9·19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제2조 5항)는 점을 들어 경수로의 조속한 제공을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경수로 제공에 최대한 많은 전제조건들-모든 핵프로그램의 전면 공개, 핵시설의 완전한 불능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 등-을 내걸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평화체제 수립논의는 이러한 예상쟁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쟁점들이 모두 해소돼 북한의 핵 불능화와 북·미관계정상화, 북·일관계정상화, 대규모 에너지 제공 등을 맞바꾸는 단계로 나아가더라도 한반도평화회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누가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인가”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형식은 남·북·미·중 4국이 반드시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첫째, 한미동맹과 북한의 적대관계가 한반도 긴장의 본질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을 당사자에서 배제하는 평화협정은 체결되기 어렵고, 둘째, 정전협정 서명국인 중국이 평화협정 체결의 형식적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해, 중국의 참여는 한반도평화체제가 동북아시아다자안보협력체제의 산파역할을 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평화협정에 답아야 할 내용

한반도평화회담의 핵심목표는 남·북·미·중이 한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평화협정에 답아야 할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한국전쟁의 공식종결에 관련된 내용을 답아야 한다. 평화의 유지를 위해서는 평화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종전선언문 채택의 주체를 북한과 미국 뿐 아니라 남한과 중국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종전이 합의되면 정전협정의 관리주체였던 유엔사령부 해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유엔사령부는 이미 1991년 9월 남북유엔동시가입으로 존재근거가 희박해졌고, 정전체제의 관리기구라 할 수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도 유명무실화됐으며, 유엔사령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왔던 미국이 평화협정 당사자가 될 경우 더욱더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 또한 유엔사령부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화통일 진전을 위해서도 해체되어야 한다.

셋째, 동맹해체 절차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의 상호주의적 해체는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이 동북아시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길 중 하나다. 이 중 북중동맹 해체는 조약 파기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데 비해, 한미동맹 해체는 보다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가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평화체제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성격이 '평화유지군'으로 일정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중국이 평화협정 당사자로 참여할 경우 무의미해진다. 이미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아시아태평양신속기동군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패권 확대를 견제하는 중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 평화협정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충돌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향한 동시행동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지대(nuclear-weapon free zone)는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배치 등을 금지하는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와 달리 군사훈련 목적을 위한 핵무기의 출입과 통과까지도 완전히 금지하고, 무엇보다도 핵무기 보유국들이 남북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 사용위협을 해서는 안 되는 상태다.

다섯째, 전후(戰後)문제 청산을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해양경계선처럼 정전협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남북 간의 영토문제를 평화협정을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며,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합의해야 한다. 또한 미귀환군포로, 납북자, 장기수, 전시 민간인 학살문제 처리 등도 평화협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다.

여섯째, 남북은 평화통일 추진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 합의한다. 한반도평화협정에 의해 수립되는 한반도평화체제는 평화통일에 의해서 공고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남북의 평화통일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일곱째, 남·북·미·중은 상호 충돌과 전쟁의 포기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다자안보협력체제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명문화한다.

여덟째, 위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집행할 평화협정이행기구-평화통일추진기구 포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평화협정이행기구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추진회의, 군사동맹해체회의, 과거청산회의 같은 '협의기구'와 합의사항을 실행하는 '집행기구'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와 통일의 관계

한반도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이행되고 북한과 미국·일본과의 수교까지 완료되면 한반도평화체제가 비로소 수립됐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한반도평화체제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정착이 함께 진전되어야만 한다. 한반도평화체제가 수립된다 하더라도 분단 상태에서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 심각한 대결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한반도평화에 언제라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

이다.

한편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남북 통합수준이 높아질수록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평화촉진자'로서의 위상과 역할 역시 함께 높아질 것이다. 요컨대 한반도평화체제를 기반으로 통일한 남북이 동북아시아 평화정착의 중추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은 대체재(代替財)가 아니라 보완재(補完財)이며, 따라서 한반도평화협정은 이 글에서 제시한 것처럼 반드시 통일관련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1) 이 글은 곧 발간될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고희기념 논문집 『전환기 한미관계 재판짜기 2(가칭)』(한울출판사)에 실린 필자의 논문을 발췌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어떤 상태를 '불능화'로 볼 것인지, 곧 불능화 개념에 대해서도 심각한 논쟁이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시켜 통일로 가자

사무처장 김종일

이른바 북핵문제를 내세워 극단적인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하던 부시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고 있고, 냉전과 분단에 앞장서온 정치세력도 앞 다투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2006년 10월 이후 미국 부시 정부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한에 대해 군사적 무력을 동원하여 전쟁도 불사할 것이냐, 아니면 대화로 정책을 전환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놓였다. 이미 이라크 침략의 늪에 빠져있는 부시 정부에 대북강경책이 북핵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는 비판여론이 빗발치고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참패한 부시는 외교적 실패를 자인하고 대북강경노선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상황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대화의 국면으로 극적인 전환을 맞게 되었다. 그토록 염원하던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민족 통일의 실현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50년 넘게 지속되어온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국제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진주한 모든 외국군을 철수시키는 일이며, 또한 정전으로 인한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일이다.

지난 반세기 이상 적대했던 북한과 미국이 화해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평화협정 체결은 적대적인 북미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늘 전쟁의 위기 속에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대립과 반목을 일삼던 남북관계도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대선회를 하게 된다.

이는 우리 민족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호기다.

그러나 도래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 정세는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위기이기도 하다.

그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과 이른바 ‘경주선언’을 발표했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합의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두 달 만이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6년 1월 20일, ‘한미동맹 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같은 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이 있는 후에 개최된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양국은 ‘한미동맹비전 공동연구’를 채택하여 새로운 한미동맹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미양국은 북한에 대한 방어를 명분으로 유지되어온 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을 이른바 ‘신 한미동맹’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음을 공표하였다.

신 한미동맹은 미국의 패권에 맞서 ‘지역 및 범세계적으로’ 미국에 ‘도전’하여 ‘패권국가로

등장할 수도 있는' 중국에 맞서기 위한 동맹이다. 또한 미국의 패권 행사에 저항하는 북한에 맞서는 동맹이다.

신 한미동맹은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 이후까지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며 구 한미동맹을 가치동맹, 경제동맹, 포괄동맹, 지역 및 지구동맹으로 전환한다. 결국 신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비롯하여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영구히 자신의 패권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이해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게 만드는 것이다. 신 한미동맹 아래에서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이익이 질식되고 우리 국민의 생존이 항상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다. 아프간에서 일어난 한국인 희생과 억류사태는 바로 신 한미동맹의 현 주소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이 보장해 준 미국의 군사적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주면서 북한에 대해서 더욱 적대적 성격을 갖는 신 한미동맹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족의 통일은 기약조차 할 수 없이 다시 먼 미래로 물러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데도 동시에 북한을 겨냥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운 것과 같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조화되도록 하는 것으로, 한반도 구축의 출발점이자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다. 따라서 어떤 평화협정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민족의 자주를 실현하느냐, 영구적인 대미예속에 떨어지느냐가 가늠된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는 한미동맹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평화통일운동세력은 대부분 한미동맹 세력에게 짓눌려 있거나 포위되어 있다. 심지어 그들에게 포섭된 경우도 있다.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정세 주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한미동맹 세력이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 주도해나간다면 그 평화협정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영구히 미국의 이익에 내맡기는 도구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 세력이 주도하는 평화협정 체결 흐름을 차단하고 민족과 국가의 이익이 실현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투쟁을 전면화 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핵심고리는 주한미군 철수 투쟁이다. 주한미군 철수야 말로 한반도 평화협정이 민족의 자주를 실현하고 통일을 이루는 평화협정으로 만들어 주는 보검이다. 주한미군 철수 없는 평화협정은 평화도, 통일도, 자주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평통사는 2000년 매항리 폭격장 폐쇄 투쟁으로부터 여중생 투쟁, 용산, 평택 투쟁과 방위비분담 투쟁 등 그 동안 온 힘을 다해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제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민족사적 전환기를 맞아 자주적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자. 이것은 그 동안 전개해온 대중적 반미투쟁의 성과에 기초하여 본격적으로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는 것을 말한다. 이 역사적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가 평통사의 향후 진로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7월 8일 개최된 임원워크숍에서 결의된 대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투쟁에 떨쳐나서자. 이 투쟁은 평통사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향후 100년 운명을 가늠하게 될 것이니, 초심으로 돌아가 사활적 이해를 걸고 떨쳐나서자.

7.27 성명서

-정전협정 체결 54주년에 즈음한 평통사의 성명-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미군은 한반도를 떠나라 !

오늘은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54주년이 되는 날이다. 연내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은 여느 때와 다를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남북미중 4개국 포럼이 열린다면 그것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과 1990년대 중반의 4자 회담 이후 최초의 평화회담으로서, 평화와 통일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정세발전이 민족의 숙원인 평화와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미군의 주둔을 전제로 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한미당국의 구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만약 한미당국의 의도대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통일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미국의 전략이 관철되는 대신 우리 국익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익에 밀려 또 다시 주변부로 밀려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정부당국의 구상을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미국이 책임 있는 당사자로 참가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

미국은 대북 전쟁위험의 실체로서 남북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책임 당사자다. 미국은 정전협정의 체결과 동시에 이를 위배하는 내용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북한 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하는 군사전략과 북한 중심타격을 핵심으로 하는 공지전 교리, 대북 선제공격적 작전계획을 한국군에 강제하고, 이를 위한 지휘체계와 전력을 갖추어 대규모 전쟁연습을 자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적대적 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평화조약의 당사자로 참여해 국제법적 규범 하에 한반도 평화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해야한다는 정부당국의 주장(이른바 2+2론)은 북한이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면제해주려는 잘못된 주장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미군은 한반도를 떠나고 한미동맹도 폐기하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철수는 물론 한미동맹도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통일이후까지 주둔하면서 동북아 세력 균형자,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한미동맹유지세력들의 주장을 엄중히 비판한다.

세계최대의 군사비를 사용하는 미군이 철수해야만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또 미군이 자신의 기득권을 희생하고 의무만 주어지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할리도 없지만 유엔은 명목상이지만 한국 전쟁 교전 당사자라는

점에서 중립적 평화조성자로 될 수 없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물리력이자 수단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및 통일과정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밝힌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잠재적 전쟁공동체’로서 북한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에 따라 그를 실행하기 위한 지휘체계, 전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동맹을 폐기하지 않고서 적대관계의 청산 및 공격적 무력의 제한과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FTA로 대표되는 신한미동맹(한미동맹의 가치, 포괄, 광역동맹으로의 재편)은 군사적 영역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미국식 가치와 이익을 강제하고 대북 변환외교를 뒷받침함으로써 민족의 자주, 평화와 통일에 적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우리는 주권도 포기한 채 미국의 일방적 이익과 군사적 패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한미연합사 대신 유엔사를 내세워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하려는 한미당국의 기도를 규탄하며 늦어도 평화협정의 체결과 함께 유엔사를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비확장 노선으로 점철된 국방중기계획을 폐기하고 군축협상에 나서라 !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조치들, 곧 공격무력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포함하여 북미/남북 간에 군비제한과 군축이 주요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평화협정을 다루는 회의와 함께 군사회담이 함께 시작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은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7월 13일의 북한의 군사회담 제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서 한미당국은 하루 빨리 이에 부응해 나서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안보위협을 감소시키고 평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폐기에 상응한 미국의 책임 있는 조치들, 곧 북한에 대한 핵공격계획 및 한반도와 그 인근에 배치된 무력을 철저히 철거하고, 남북 간에도 군비 제한과 군축협상을 실시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한편 우리는 08~12년 국방중기계획을 폐기하고 국방비를 대폭 삭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56조원을 투자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및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하는 군사전략과 교리, 작전계획에 따라 이의 실행을 위한 전략적, 공세적 성격의 C4ISR(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기동/정밀타격 전력을 구축하려는 계획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러한 중기계획은 2.13합의조치가 가속화되는 정세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자 우리의 안보전략이자 국방목표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2006 국방백서)과 양립할 수 없으며, 헌법4조(평화통일정책 추구)에도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이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전략과 교리를 폐기하고 방어위주의 전략으로 전환한다면 C4I도 우리 경제력과 기술력의 수준에 맞는 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전략적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전력, MD체계는 불필요해지고 대폭적 군비삭감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민족적 재원과 역량을 낭비하며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력증강노선을 철회하고 국방비를 대폭 삭감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대단결로 자주적 통일을 앞당기자!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된 최근 정세의 진전으로 민족 통일도 가시권내에 들어왔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에 동의하긴 했지만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 공세와 친미지대화로 중국을 봉쇄하고 동북아에서 자국의 국익을 관철하려는 패권정책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

통일 한반도를 자국의 관리 하에 두려는 미국에 맞서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해를 떠나 대단결을 실현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의 권리와 통일방안을 평화협정에 담아내고 관련국들이 이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는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대전제로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민족적 이익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에 기초한 평화협정의 체결, 곧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의 폐기를 지향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민족의 대단결과 자주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

2007년 7월 27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 전북평통사 박영천 회원

인터뷰/정리: 회원사업팀 정동석

전북 익산 황등, 자그마한 동네에 '전국 꽃 배달 콜그린'이란 아담한 꽃가게가 있다. 바로 이 꽃가게가 전북 평통사를 든든하게 지키는 박영천 회원과 부인이 1남 1녀의 자녀를 키우면서 운영하는 꽃 가게이다.

12년전 인천 평통사 백요순 회원의 작업(?)으로 시작한 '기독교청년회'에서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약칭 평통)' 그리고 지금의 평통사까지 12년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영천 회원을 익산 시민 통일한마당 현장에서 만나 보았다.

평통사와 전북 평통사 자랑한마디?

평통사는 끊임없이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고 실천적 과제들을 만들어 주는 생명력을 가진 조직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을 살아움직이게 만들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통사를 사랑하지 아낀 수 없다.

전북 평통사는 지역 실정에 맞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물론 모든 활동이 당면한 정세에 부응하여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평가할 점이 많지만 이 문제는 언제나 중요하므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통사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매향리 미국계 폭격장 폐쇄 투쟁과 효순이 미선이 관련 투쟁을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때 매일 집회를 따라 다니면서 경찰 버스에 연행돼 싸우고 맞고 하던 기억이 난다. 아마 그 때가 나로서도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였던 것 같다.

지역에서는 '무기장난감을 화초로 바꿔주기 사업'이 기억이 난다. 당시 시민들의 호응도 높았고, 참 분위기도 좋았다. '무기장난감 화초 바꿔 사업'을 지역에서 처음으로 진행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하고 부듯함도 느꼈다. 중앙에서 제기되는 본질적인 내용들을 하면서도 지역의 대중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내었고, 그 과정에서 회원들 간에도 애정이 쌓였다. 새로운 일을 개척한다는 게 힘들지만 창조적 사업을 꾸려 나가야만 조직이 활력도 생기고, 동력도 생긴다는 교훈을 얻었다.

결혼하고, 두 자녀까지 키우면서 활동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을텐데

아이들 키우고 생활하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데 평통사의 위상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꾼들의 자세, 고민, 품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나약함을 이기게 해주는 힘으로 된다.

단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평통사가 나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안할 경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평통사는 나를 다그치고, 부끄럽게 만들고 결국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특히 조광수 국장이 오랜 기간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평통사 활동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앙에서는 평통사의 기초, 위상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지역이 가지는 문제들, 지역이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본다.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중앙에서 인적, 내용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평택투쟁 이후 주요 실천사업들이 끊겨있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주요 실천 사업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의 경우 사업과 조직을 튼튼히 꾸릴 수 있도록 만들고 고민해야 하는데 취약하다. 또 느슨한 시민들을 평통사로 담아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북평통사가 왜소해지고, 도전하지 않으려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힘들어하는 분위기, 갈수록 먹거리 문제에 안주하거나 나약해지는 문제에 가슴 아프다.

전국의 평통사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 엄청난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이 무더위만큼이나 힘든 일들을 많이 보낼지라도 굳건히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박영천 회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가 평통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과 조광수 국장을 비롯한 동지들에 대한 사려깊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그의 마음은 마치 그의 가게 가득 꽃힌 꽃들보다 더 아름답다. 박영천 회원처럼 곳곳에서 묵묵히 평통사에 대한 변치않는 애정으로 실천하는 회원들이 있기에 평통사의 미래는 밝다.

홍근수 목사 고회기념 연구논문집
『전환기의 한미관계 새판짜기 2』
출판기념회에 초대합니다.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가 이사장으로 계시는 평화·통일연구소에서 지난 해 홍근수 목사님의 고회를 맞아 헌정하려다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 미뤄진 연구논문집이 이번에 출판기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논문집은 지난 2005년에 출판된 『전환기의 한미관계 새판짜기』의 후속편으로, 그 후 전개된 작전통제권 반환 합의 등 한미관계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는 본 논문집에 이어 『전환기의 한미관계 새판짜기』의 후속편들을 출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뜻깊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7년 8월 24일(금) 오후 6시

【 장소 】 향린교회

【 주최 】 평화·통일연구소 / 평화의 길 / 평통사

【 후원 】 한울출판사

【 진행순서 】

- 인사말씀 : 문규현 평통사 공동대표
- 축 사
- 서 평
- 헌 정 식 : 강정구 교수(필자대표)의 헌정사와 홍근수 목사의 답사
- 축 하 연

【 참가비 】

- 참가자 1인 당 2만 원 (도서비 권 당 15,000원 + 축하연 음식 경비 5,000원)

사진으로 보는 중앙 소식

임원워크숍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전면화 해나가기로 결의한 평통사는(7월 8일, 위 왼쪽 사진) '정전협정 54주년을 맞는 한국 시민사회 선언'에 참가했습니다(27일, 위 오른쪽 사진).

또한 한국진보연대(준), 평택범대위 등이 주최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촉구대회'에 참가했으며(28일, 아래 왼쪽 사진 / 민중의 소리 - 김철수 기자) 집회 후 자체 결의대회를 열어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지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아래 오른쪽 사진).

→ 관련자료 : [정전협정 체결 54주년에 즈음한 평통사 성명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미군은 한반도를 떠나라"]는 평통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 아프간 파병은 결국 21명의 한국인 억류와 2인의 희생이라는 비극을 빚어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날개를 달고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자신의 패권을 실현하기 위해 뺏어나갈 때 한국이 이에 동참하게 되는 침략적 한미동맹. 이번 사태는 그 침략적 한미동맹의 현 주소를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통사는 한국인 억류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미국이며 따라서 탈레반과 협상에 나서라는 요구를 들고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1인 시위에 나서고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촛불행사에 참가했습니다.

→ 관련자료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한국인 억류사태, 미국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평통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유엔사를 강화함으로써 작전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한 SPI회의를 강행하는 등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폐기되어야 할 한미동맹에 더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작전권 즉각 전면 환수를 위한 각계인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7월 6일, 위 왼쪽 사진). 이 선언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1,034명이 참가하여 한미동맹 폐기에 대한 요구가 우리 저변에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실감케 해주었습니다. 이 선언에는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다 구속된 이시우 작가도 동참했습니다.

또한 유엔사 강화와 평택 기지 확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열린 14차 SPI회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27일, 위 오른쪽 사진)과 사이버 시위 등 대응활동도 벌여냈습니다.

이와 아울러 쓰레기탄약을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기기 위한 이른바 와사 2차 협상에 대한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아래 왼쪽 사진). 이 기자회견에는 충북 영동에 건설되는 쓰레기탄약 처리시설 반대에 나서고 있는 주민들도 참가했습니다(30일, 아래 가운데 사진).

한편, 평통사는 침략적 한미동맹 비용으로 쓰여질 방위비분담금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캠페인 활동도 벌였으며(13일, 아래 오른쪽 사진)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추적에 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고발(4월 20일)한 김장수 국방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에 관하여 고발인진술을 진행(19일)했습니다.

→ 관련자료 : [제14차 한미안보정 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문]은 평통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2008년 국방예산(안)으로 올해보다 무려 2조 4천억이 늘어난 26조 9321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습니다. 또 2012년까지 16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국방중기계획(08년~12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기획예산처 장관을 면담(26일)하고 국방중기 계획과 대폭 증액되는 국방예산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오른쪽 사진)

또한 70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집회(31일)를 열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 예산을 삭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왼쪽 사진)

→ 관련자료 :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자료 요지 "08~12년 국방중기계획과 08년 국방예산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은 평통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 : [200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평통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평통사는 이랜드 노동자 농성장에 대한 정부의 침탈(20일) 이후 이랜드 투쟁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천, 인천 회원들과 회원사업팀을 중심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이랜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화에서 역사와 현재를 만나다

서울평통사 여행분회 '길쌈' 회원 윤영일

길쌈은 지난 7월 14일(토) 강화도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현장으로, 강화 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 서영선(77) 회장님을 모시고 답사를 갔습니다. 강화도의 양민학살은 1951년 1.4후퇴 당시 반공청년단(치안대)들이 부역자 또는 월북자 가족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을 학살하였고, 밝혀진 희생자 수만 200명이 넘습니다.

서영선 회장님의 아버님(당시 42살)은 당시 군청에서 장학사 일을 하시다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월북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당시 38살)과 동생(당시 1살)이 월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끌려가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끌려가시던 그 뒷모습이 어머님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행은 당시 희생자들이 간혀 있었던 곡물검사소, 양조장, 경찰서 유치장과 총살당한 옥계 갯벌, 갑곶선착장을 다니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옥계 갯벌에서 총살을 하면 다음날 시신들은 바닷물에 휩쓸려 가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구 강화대교(갑곶 선착장)에는 서 회장님이 세운 어머니 추모비가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위령제는 매년 4월, 갑곶 선착장(구 강화대교)에서 지내고 있으며, 서 선생님과 유족들의 요구는 학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시 학살을 자행한 가해자들이 지금 살아 있는데, 찾아가서 진상을 물어보면 '모른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며 대답을 회피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성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서 선생님은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이 담긴 [환과 슬픔은 세월의 두께만큼]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셨는데, 우리 일행에게 주셨습니다. 책에는 행복했던 유년시절과 쓰라린 기억, 길고 긴 투쟁의 세월과 슬픔, 학살의 전모, 유족들의 상처와 고난, 강화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학살현장 답사를 마치고 강화군청 근처 한식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서 선생님은 어머니 추모비 주변에 풀을 정리하신다며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내년 위령제때 뵙겠다는 인사와 함께 선생님의 건강을 빌어드렸습니다. 많은 유족들은 40여년 세월을 피해자라는 말도 못하고 가슴속에 한을 품고 살아가거나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비단 강화도뿐만 아니라 노근리, 경북, 경산, 전남 나주 등등 전국에 걸쳐 양민학살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3월 만리포에서는 평양점령을 목표로 하는 한미연합연습 RSOI훈련이 있었고, 1994년 여름에는 미국이 북에 대해 폭격을 하려다 만 일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민통선 마을인 철산리로 갔습니다. 민통선 입구에서 경계를 서던 군인이 연고가 없으면 출입할 수 없다며 우리를 막아셨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청에 알아봤는데 개방이 됐지 않느냐?”고 항의하니, 민통선 안에서 사진을 촬영하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주민등록증 내용을 기록부에 적고 들어갔습니다. 민통선을 찾아 가기로 한 것은 이호민 회원의 역할이 큼니다. 며칠 전 강화군청에 민통선 출입여부를 알아보고 들어 갈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민통선 안의 마을은 어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눈에는 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녘 땅이 보였습니다. 바다 건너에 보이는 마을이 개풍군이라고 합니다. 손에 잡힐 듯이 매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현재 비무장지대에 묻힌 지뢰가 유실돼 강화도 주민들이 다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이야기와 함께, 미군 통신시설이 설치 되어있는 고려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네 땅인데 우리 마음대로 사진 촬영도 못 하고 그냥 눈으로만 봐야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산과 들은 조용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통선을 빠져나와 철종 외가를 찾아갔습니다. 철종의 외갓집에 가니 관리인은 없고 마을 아저씨들 두 명이 문 앞에 앉아서 쉬고 계십니다. 집과 주변을 둘러보고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로 향했습니다. 조선시대 말, 조선을 침략하려는 미국군·프랑스군과 맞서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치룬 곳입니다. 외세에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선조들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고,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고, 군사주권도 미군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뭐라고 하실지... 또,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관광지 또는 지난 역사의 한 현장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민통선이 해제되고, 고려산에 미군통신시설이 없어지고, 대인 지뢰가 없어지고 민간인 학살 진상이 규명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선조들이 바랄 거라는 답을 해봅니다.

강화도를 뒤로 하고 일행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 강화도 답사는 사전 조사도 많이 하고 길 안내도 열심히 한 이호민 회원이 있어서 더욱 재밌는 기행이었습니다.

▶ 회원글

- 나눔의 집에 다녀와서

부천평통사 노철성

더함 분회가 주최가 되어 회원들과 함께 나눔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나눔의 집에 가기 전에 분회에서 '위안부[일본군성노예]'에 대해 조금이나마 공부하고 할머니들이 나눔의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지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공부를 통해 느낀 점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눔의 집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원에는 동상들과 예술 작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할머니들의 삶을 동영상과 역사관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시며 병으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추모비도 있었습니다.

추모비를 보면서 할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모진일을 당하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오셨음에도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에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추모비가 왜 그리 쓸쓸해 보이던지...

나도 모르게 할머니 추모비 앞에서 묵념을 하고 '편히 잠드세요 할머니..' 라는 말을 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관과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해 놓은 것을 보면서 너무 끔찍했습니다. 전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으로 남는 것 같아 너무 끔찍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오신 할머니들이 일본대사관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진상규명, 공개사과'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의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내가 왜 평통사에서 활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일본이 공개 사과하는 날까지, 그리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저도 힘차게 살아갈테니 할머니들도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우.리.학.교.를.보.고

글/통일분회 '부싷돌' 이종일

한동안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두 번이나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야 했다.

그리고, 그건 아마 내가 재일동포들의 실제 생활들을 기록해서 만든
'우리학교'에 동화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한 혹가이도.

그곳에는 광복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재일동포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혹가이도 조선초급중급고급학교'가 있었다. 문화와 생활양식이 다른 일본사회 속에서
그들은 검정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한글을 배우며 우리 고유의 민족성을 지켜가고 있었다.
처음엔 재일동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강세 섞인 한글 발음을 들으며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받는 영향을 생각하며
차츰 이해되는 듯 했고 익숙해지는 듯 했다.

내가 '우리학교'를 관심있게 봤었던 부분은 두가지였다.

첫째는 총련의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생활이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식과 문화, 언어, 학습형태, 생활방식 모두를
학교 선생님들이 관여하고 기획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을 단순히 의식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주체로 세우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서 다양한 학습방법이 나타난다.

학생들의 생활에 깊숙이 개입하고 지도하는 선생님의 모습.

학생들의 잠자리를 직접 신경써주며, 곁에서 돌봐주는 선생님의 모습.

동무들간에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생활규범을 실천하는 모습.

대호선생님, 경화선생님이라며 학생들이 선생님의 이름과 별명으로 호칭하는 모습.

사뭇 한국의 학교와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공동체를 이루며 교원과 학생들간에 흥금을 털고 솔직하게 생활하는 모습은

사실 인간적인 아름다움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있게 봤던 부분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성이었다.

아이를 낳고 모든 대화를 일본말로 애길 하면서도 '엄마, 아빠, 할매, 할배'만큼은
우리말로 얘기한다는 이민2세의 인터뷰. 서구문명과 일본전통이 뒤섞여 있는
일본사회에서 재일동포들의 민족성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끈질기게 지켜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일제강점기 당시부터 시작된 재일 조선인에 대한 탄압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러한 탄압에서도 조선인의 정신과 문화를 배우는 조선인학교를 지키려고 했던

재일동포들의 투쟁과 정신은 위대하게만 보인다. 그러니, '우리학교' 학생들이

동포사회에 감동을 주기 위했던 일본학생들과의 축구경기에서 패한 후

대성통곡했던 것은 당연했으리라.. 그리고, 나는 그 학생들의 재일동포에 대한 애정과 젊은이들의 열정, 민족적 자부심에 대한 모습에서 진한 감동을 느낀다.

‘우리학교’에서는 민족에 대한 소중함을 보여주며 재일동포의 조국, 우리의 조국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일본에 있는 동포들의 시각을 통해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남한에서 살고 있는 나의 의식과 실천에 대한 반성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고 평화적인 조국통일과 민족자주의 소중함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본다.

서울평통사

여름맞이 산행

7월 17일(화) 서울대공원 과천수목원으로 여름맞이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30여명의 회원들과 아이들이 함께 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관련글 : [7/17] 서울대공원 과천수목원 다녀왔습니다

노동분회

노동분회 모임이 나날이 힘이 빠지고 있어요. 분회원 참가가 너무 저조해서요.

그래도 모임은 꾸준히 하기로 했습니다.

동식, 문희, 영일 셋은 평화협정 관련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문희의 발제로 유엔군은 유엔의 군대가 아닌 미국의 다국적군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발제한 내용은 되풀이해서 물어 보고 물어 보고, 또 물어보니 거의 다 외워버리게 되었네요. 유엔사의 휴전협정 체결권도 미국에 있고, 유엔사의 지휘권도 미국에 있고, 또 해체권마저 미국에 있는 유엔사는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이라는 것을 이젠 확실히 알게 되었답니다. 영일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서 바로 카페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실천적 모습에 문희와 동식은 박수를 쳐주었지요. 이날 모임은 영일의 모범적 모습을 따라 배우기로 하면서 마무리 했어요. 그리고 다음 모임은 평화협정 공부를 이어서 할 거예요.

꼭 다들 참여하셔야 합니다.

참, 이랜드 투쟁으로 한창 바쁜신 노동분회 전영규 회원. 계속되는 투쟁으로 몸 상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영규님 힘내세요.

여성분회 '노뚝들'

7월 정기모임은 4일(수), 박석분 교육팀장님을 모시고 평화협정체결 관련한 내용으로 교양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들어 급변하고 있는 북미관계와 한반도의 통일정세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던 분회원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통일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정말 오랜만에 회원들과 함께 한 17일(화) 나들이에는 여성분회원들이 많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공기 맘껏 마시고, 준비해간 점심으로 맛나게 먹고, 땀도 많이 흘리고, 동물 구경도 많이 하고... 집에 와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원들은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고, 9일~10일 남미영 회원이 김제에 사는 김형예 회원 집에 다녀왔습니다. 아주버님이 운영하시는 약재상 일을 정리하고 집에서 생활한복 만드는 일을 짬짬이 하다가 지금은 웅진 코웨이 코디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 내려간 지 이제 1년이 되었는데,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모임은 8월9일(목), 7월에 이어 평화협정관련 2차 교양을 할 예정입니다.

여행분회 '길섧'

드디어, 길섧 분회가 강화도로 첫 여행을 갔습니다. 지난 14일(토), 서영선 강화양민학살 유족회 회장님을 모시고 모두 여섯 명이 함께 강화도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강화읍 양조장은 당시 우익들이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누명을 씌워 민간인을 끌고 와 가두었던 곳으로, 서영선 회장님의 어머니와 당시 한 살이던 남동생은 결국 갯벌에 끌려가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서 회장님이 자비로 세운 추모비 근처는 강화군청에서 갖다 놓은 온갖 건물자재와 무성한 풀 때문에 마치 공사현장 같았습니다. 서 회장님은 지난 5월에 와서 풀도 뽑고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또 군청에서 이런 물건을 갖다 놓았다며 무척 속상해 하셨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호민 회원이 추천한 강화도 북단 철산리에 갔습니다. 군사보호시설에서 해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갔는데도 군인들이 통제를 하고 있었고, 사진 촬영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들어가서 멀리서나마 북녘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철산리를 둘러서 나오는 길에 연개소문이 태어났다는 전설을 지닌 고려산을 보았습니다. 꼭대기에는 미군의 통신시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철종의 외가를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철종 외가로 접어드는 시골길에 있던 허름한 양철지붕 집을 철종 외가라고 우기는 어떤 두 회원 때문에 배를 잡고 웃으며 한적한 고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택 대문 그늘에는 마을 노인 두 분이 한가로이 장기를 두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를 둘러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입장료를 받아 살짝 아깝긴 했지만, 바닷가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경치를 둘러보기에는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세에 맞서 싸운 이야기며, 당시 처참했던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길섧 분회의 첫 여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회원과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참, 전 분회장인 장윤지 회원이 딸을 출산했습니다. 원래 9월이 산달 예정이었는데 임신중독증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장윤지 회원은 퇴원해서 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 관련글 : 치욕의 현장이자 통일의 희망인 강화를 가다

→ 관련글 : 7월14일]장윤지 회원 아기 낳았습니다

영화분회

지난 7월 23일(월) 종로 인사동 낙원상가에 위치한 서울아트씨네마에서 '동백아가씨'를 이경아, 이승재, 김슬기, 최문희, 윤영일 회원이 함께 보았습니다. '동백아가씨'는 네 살 때 한센병에 걸려 소록도에 간 이행심 할머니(78세)의 이야기로, 사람들의 편견과 무지로 소외받고 고통 받는 한센병 환자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한센병에 대해 너무 몰랐

다는 사실과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나의 무관심,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 뒤늦게 온 나영훈 회원과 함께 흥겨운 뒤풀이를 하였습니다.

알립니다.

8월 8일(수) 저녁 7시, 사무실에서 박석분 교육팀장님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교양을 합니다. 운영위원과 분회원 여러분! 꼭 참석해 주세요.

부천평통사 소식

야유회 다녀왔어요~~~

7월 22일 아침.

일요일 아침치곤 좀 서둘러야 했습니다.

8시까지 사무실 앞 집결이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도 특별히 늦는 사람도 없이 제 시간에 모여 출발하였답니다.

2시간가량 가다보니 목적지인 측령산자연휴양림에 도착하였습니다.

와~~우~~

나무가 우거진 것이 한눈에 봐도 정말 좋기만 합니다.

장소를 섭외하고 답사까지 하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만큼 좋았답니다.

부천의 미래 꿈나무들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예쁘죠?

맨 위 왼쪽 아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석(김성근, 양난영 회원의 아들), 김강-김산(이혜련 회원의 쌍둥이 아들, 참고로 회원들도 구분을 잘 못합니다.), 김도연(임숙영 회원의 4개월 된 딸), 최준혁(김지선 예비회원의 아들), 보미(성명은 회원의 딸), 손혜민(박숙경, 손중욱 회원의 딸), 장민영(장인옥, 임현순 회원의 아들), 김건우(김성용, 배영미 회원들 아들) 이랍니다.

아가와 엄마가 놀고 있는 모습이 참 예쁘죠?

성명은 회원, 이보영 회원, 임숙영 회원이랍니다

모두들 아가 엄마들이죠. 이래서 미시족이라는 말이 있나봅니다.

모두 어여쁜 아가씨들 같죠? 참, 가운데 있는 이보영은 10월이 출산달이랍니다.

옷 색깔이 잘 맞는 회원들끼리 사진을 찍었나요?

참 색깔이 잘 어울리죠? 이어올림 분회원들 한컷!

근디 분회장님과 베이스는 어디에 버리고 왔을까요....

영화분회 박상호 회원과 더함분회 김정훈 회원

대낮에 삼겹살에 한잔들 걸쳐서 얼굴이 별정계 달아올랐네요.

얼굴만 달아오른 것이 아니라 어찌 눈도 약간 풀린듯하죠? 하하하

와~우 신나는 점심시간입니다.

준비팀에서 특별히 신경썼다는 생산겹살에 김치와 밥이라...

정말 환성적인 점심식사였습니다.

집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아쉬움을 접고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찍은 사람 실력이 영 아니네요. 얼굴들이 잘 보이면 좋았을텐데요.
1년에 한번밖에 없는 야유회를 당일치기로 다녀와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회원과 주변의 친구들이 어우러지는 시간.
참, 이날 회원으로 1분이 가입하시고, 후원회원으로 1분이 가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유회를 다녀와서 느낀 점은,
선물이 있는 게임을 할 때는 어른이든, 아이든 마냥 신나는 것 같습니다.
영화분회 분회원들의 야유회 목표는 보물을 모두 찾아 그것으로 분회원 전체가 영화를 보러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선물중에 영화티켓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일요일 분회원들이 모두 모여 영화도 보고, 8월 8일 있을 강연회 포스커 붙이기도 함께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분회 소식

▶ 이어올림

홈에버 비정규직 투쟁이 너무 힘겹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도 홈에버 앞에서의 집회, 1인 시위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에 결합하지는 못하지만 노래를 무기로,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 전 분회장님이신 뽕양이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습니다. 10월 경이면 예쁜 조카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더함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요즘 저희 분회의 유행어는 ‘진실게임’입니다.
분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수련회를 가서인지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가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지금 현재 힘든 것에 대한 이야기도, 고민 되는 것도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시작이 되어 요즘 분회모임만 하면 나눔 시간에 진실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 평화

저희는 요즘 금강산 기행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평통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천지역 한국노총 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31 ~ 9/2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금강산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회학습으로 운영위에서 진행하는 공부를 분회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열공하고 있습니다.

▶ 영화

2주에 한번씩 모임을 하다보니 한번 모임을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한달이 되어야 얼굴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번씩은 특별한 일이 없는 주말이면 분회원들과 시간 되는 회원들을 모아 영화도 보고 한답니다.

지난주에도 모여 영화 한편을 보고 모두 함께 8월 8일 있을 강연회 포스터 작업을 했습니다.

▶ 여성

장마여서 그런지 비가 한번 썩 오고나면 아이들이 감기를 앓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아파서 엄마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22일 야유회에 아이들과 참여를 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 이후 일정

▶ “하나 되는 금강산 여행”

연제 : 2007년 8월 31일(금) ~ 9월 2일(일) = 1박 3일

금요일 저녁 11:30분까지 부천 집결

여행경비 : 어른 35만원, 중고생 29만원, 초등학생 26만원

♪ ♪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철따라 ~ ♪ ♪

인천지역 소식

1. 활동보고

제3회 평화사랑방

7월 10일 오후7시, 오혜란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한반도 평화협정(조약) 체결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제3회 평화사랑방을 27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오혜란대표는 “2.13합의 이후 북핵문제 해결 논의가 급진전 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때가 왔다. 평화협정 체결이 현실화된 추동력은 부시정권의 일방주의 정책의 실패와 북의 핵보유 선언에 이은 핵실험은 부시 정권으로 하여금 북과 평화협정을 맺자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은 미국이 책임있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 북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고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 폐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미국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미국을 끌어들이지 말고 주체적으로 남과 북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은 보증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개하자, 손선재회원은 “그것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허울 좋은 주체성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주장을 단칼에 반박하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협정(조약)에 반드시 답아야 할 내용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의 요체는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북미,남북 사이에는 군축실현이다. 한반도의 실질적 전쟁위협의 주범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북으로써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을뿐더러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더 이상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할 명분 또한 없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대체하여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정전협정 60항에 있는 ‘모든 외국군의 철수’ 문제는 제기 될 수 밖에 없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한 강의였지만 아직 ‘평화협정의 때가 왔다’라고 느끼는 회원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연을 통해 평화협정-주한미군철수 투쟁의 ‘때’를 주동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관련글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우리의 과제

- 회원 몸다지기 행사

7월 15일 초복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회원 몸다지기 행사를 인천대 공대 뒷마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짙은 햇빛에 무더운 날씨라 걱정을 했지만 오후가 되자 구름이 해

를 가려줘 행사하기 더없이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는 무건리 훈련장에서 단련된 멍멍이와 꼬끼오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훈련장 주변에서 키운 놈들로 몸을 다진다면 아마도 주한미군 철수 시키는데 더 큰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아주 뜻 깊은 일이 2가지 있었습니다.

▲회갑을 맞으신 염성태 대표님

한가지는 염성태 대표님이 7월 17일 환갑이시라 오늘 회원들이 모였을 때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생신선물로 그동안 대표님의 활동사진앨범을 드렸습니다. 인천공대 학생들이 축하공연으로 발랄한 율동을 선보여 분위기를 더욱 즐겁게 하였습니다. 또한, 김일회 신부님이 인천평통사 대표님을 맡아 주시기로 하면서 처음으로 회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야간을 마치고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한 박순길 운영위원(좌)과 총괄 담당 정송호 분회장(우)

▲써빙을 담당했던 부식들 분회원들

특히 이번 행사는 노동분회 정송호 분회장님이 총괄을 맡으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순길 운영위원은 야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인기가 있었던 닭죽을 준비해주신 정재훈, 김호영 회원, 써빙을 담당했던 부식들 분회 오상훈, 이종일, 문한나 회원등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 감사드리는 분은 오수정 신입회원입니다. 단체에 가입한 것은 얼마되지 않지만 이날 출선수범해서 너무나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무건리에서 함께 해주시고 후원까지 해주신 주병준 주민대책위원장님과 멋진 율동과 천막을 후원해준 인천공대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관련글 : 2007년 7월 15일(일) - 초복

- 뉴코아(구월점) 매출 “0”투쟁

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진압 다음날 21일에는 전국 61개 이랜드 매장에서 1인시위, 집회, 캠페인 등 불매운동과 매장 0% 매출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공권력과 같은 폭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천에서는 오전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뉴코아 구월점으로 집결해 공권력 투입과 박성수 사장의 반노동자적 폭력에 항의하는 매출 “0”투쟁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투쟁에는 비정규직투쟁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민주노총 부위원장인신 조남순운영위원을 비롯하여 강인규,최문석,이준걸,김병철,이종일,심자섭,방중운,김의균,조정란,유정섭,김강연회원등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인천평통사는 이랜드투쟁 지원 인천지역대책위원회에 결합하여 매일 홈에버 구월점 앞에서 '이랜드 불매운동'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글 : 뉴코아 구월점 매출 "0" 봉쇄투쟁

- 지역 현안.

계양산 골프장 반대 투쟁

계양산 나무위 농성이 끝나자마자 인천시장 안상수와 롯데는 기다렸다는 듯이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본격적인 힘을 쏟아 부었고, 환경부에서도 이를 묵인 하며 골프장 건설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대책위에서는 인천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인천의 허파 구실을 했던 계양산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7월 9일 인천시청 앞에 다시 천막을 치며 농성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김일회신부님과 윤인중목사님이 농성장을 지키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8시, 계산역 6번출구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계양산 지키기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글 :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인천시청 앞 천막농성 다시 시작

2. 회원모임

- 노동분회

7월 모임은 제3회 평화사랑방에 참여하여 평화협정 체결 관련한 교양과 7/15일 진행한 회원몸다지기 행사 준비로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 통일분회 '부싷돌'

7월 모임에서는 이랜드 비정규직투쟁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정재훈회원의 발제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동맹 폐기' 학습을 하였습니다. 오상훈회원은 '헌법에 제시된 국가이익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정재훈회원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는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주한미군 주둔한 채 평화협정을 체결을 주장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기에 우리 평통사의 실천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며 상식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 여성분회 '천지'

7월 7일(토)과 7월 20일(금) 두 번의 정기모임을 하였습니다.

지난 5월 9일 평화협정 토론회 자료집에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동맹 폐기’발제문을 나누어서 읽고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부분으로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의 자주적 정립/ 민족이익에 복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내용을 학습하였습니다. 오수정신입회원은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새롭게 공부한 것 같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너무 얽매어 있는데 정말 자주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적인 평화협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평화협정과 양립할 수 없는 한미동맹’에 대해 학습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의숙회원은 시아버님이 교통사고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산행모임

7월 22(일) 정성준 산행대장을 중심으로 뽕뽕 뭉친 7인의 대원들은 산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져있는 무의도 국사봉 산행을 하고 근처 하나개수욕장을 찾아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주 멋진 곳이었습니다.(회원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세요^^)

정성준 산행대장은 사무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산행모임 회원들과 만들어가고, 평통사를 대중적으로 확대하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결의를 함께 다졌습니다.

→ 관련글 : '우리의 산행은 우리가 만든다'

대전충남 평통사 소식

강정구 교수 초청강연

지난 7월3일 늦은 7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동국대 강정구 교수님의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강교수님은 한국전쟁이후 진행된 역사적 사실로 볼때,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은 미국이며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미국에 대한 근거없는 환상과 대미종속주의를 한시라도 빨리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강연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1시간반이 넘는 시간동안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강정구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강연을 시작으로 대전충남지역에서도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의 문제가 공론화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관련글 : 2007여름, 강정구교수 초청강연 "평화협정 체결의 전망과 과제"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 석방을 위한 홍성지역 사진전

지난 7월26일, 홍성장터에서 비무장지대를 소재로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사진으로 담아오다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는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거리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더운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홍성지역회원여러분과 유요열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관련글 :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 석방을 위한 홍성지역 사진전

-<대전충남평통사는 이런일을 했어요>-

- ◆ 6월21일, 충북 영동 미군폐탄약재처리시설 건설중단을 위한 기자회견을 영동주민대책위·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 6월28일, 대전여민회 초청강연 “통일,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 (강사:본부 박석분교육팀장)을 진행하였습니다.
- ◆ 7월3일, 대전충남평통사 2007년 제1회 평화강연<주제:‘한반도 평화협정의 전망과 과제’(강사-강정구교수)>을 개최하였습니다.
- ◆ 7월6일, ‘작전통제권 전면환수와 유엔사해체를 위한 각계인사 선언’에 대전충남평통사

를 통해 8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7월28일,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평통사결의대회'(서울 미대사관앞)에 참석하였습니다.

◆ 7월30일, 한미간의 미군폐탄약인수협상인 WRSA협상 중단촉구를 위한 국방부앞 집회에 영동 매곡면 주민대책위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알립니다>-

◇ 8월14~15일, 올해에는 부산에서 통일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8월17일, 충북 영동 미폐탄약재처리시설 취소처분소송이 항소심 결심공판이 대전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7월 안동 평통사 소식

1.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간 4박 5일 일정의 거례하나 평양-백두산 문화유적 참관단에 우리 안동평통사 회원이신 박무식님께서 참관단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돌아오셨습니다. 한편 이 행사는 남측 우리겨레 하나 되기 운동본부 및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약간 매끄럽지 못했던 지난 6.15 행사에 비해 매우 순조로웠다고 하며 특히 이번 일정참관단에는 남측의 많은 민주화운동 지인들이 대거 참가하여 그 의미가 더욱 컸다고 합니다.

2. 우리나라의 걸출한 아동 문학가이자 평화주의자이셨던, 그리고 또 작계는 우리 지역 안동 평통사의 고문이기도 하셨던 고 권정생 선생 빈소의 철상이 지난 7월 3일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소재 선생의 생가에서 있었습니다. 5월 17일 작고하신 이후 근 48일 동안 빈소가 차려진 이후에도 전국의 뜻있는 많은 분들의 조문이 이어져 그 의미가 매우 각별했는데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관계로 민족문학인 장례위원회 결정으로 이날 철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안동평통사에서도 회장 김창환 외 많은 분들이 함께 하여 님의 가는 길에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3. 7월 4일(수) 20:00, 가톨릭 상지대 부설 나섬학교에서 안동평통사 7월 정기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 정기 운영위에선 몇몇 안건과 또 몇 가지 자체 행사 결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7월 8일 개최 예정인 중앙평통사 워크숍엔 회장 김창환과 사무국장 강석주의 참석 결의가 있었고 또 작통권 반환을 핑계로 유엔군사령부 강화 움직임을 반대하는 신문광고에 전 운영위원과 뜻있는 회원의 동참유도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어 지난 북측 6.15대회의 과행 운영에 대한 김창환 회장의 배경설명과 함께 방북 보고가 있었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한 심층적 열띤 논의가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이런 의미를 더욱 다지고 또 지역의 현안 문제점을 더욱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안동평통사를 비롯한 지역의 제 단체와 함께 자체 회원의 날 행사를 이 달 중에 갖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참석자는 회장 김창환, 사무국장 강석주, 그 외 정책의장 및 운영위원 피재현, 김영애, 배용한, 이상윤, 김헌택 등

4. 7월 28일(토), 안동시 임하면 소재 인근 계곡에서 자체 회원의 날 행사를 아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안동평통사와 민주노동당, 그리고 노점상연합회 등과 함께 한 이날 행사에는 약 40 여명의 회원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하였는데 여러 준비된 음식과 유희으로 즐거운 한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한편 이날을 계기로 각 단체별로 현안인 우리 지역의 제반 문제점 그리고 또 그 실천 방법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5. 안동평통사 회원을 주축으로 한 안동 지역의 일선학교 선생님들 일행 12명이 지난 7월 24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민족의 영산, 백두산과 천지 일원을 둘러보는 트레킹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트레킹 기간 내내 날씨가 무척 맑고 깨끗하여 북녘 땅에 걸쳐져 있는 천지와 장군봉을 원 없이 감상하고 조망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편 이날 함

깨했던 모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남북관계도 백두산의 날씨만큼 맑고 화창하기를 마음속으로 함께 기원하였습니다. 함께한 회원으로는 김주철, 배용한, 김옥희, 김인숙, 김헌택, 한철희 등.

감사합니다.

전북평통사 지역활동 소식

1950년 미군 이리폭격희생자 추모제

지난 7월 11일 익산역 광장에서는 유족회 회원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약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추모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추모제는 먼저 무고하게 숨져가신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살풀이, 비나리, 풍물 등 추모공연이 있었고 이어서 내빈들이 추모의 말을 전하는 추모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관련글 : 1950년 미군 이리폭격희생자 추모제

군산 미군기지 앞 수요집회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군산미군기지 앞 집회에 정동석 국장과 조광수 국장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해고자들과 파업 중인 버스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약 10여명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5일에는 민노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함께하여 평화협정의 체결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 관련글 : 군산 미군기지 앞 수요집회

정전 협정 54주년 맞이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촉구 기자회견

지난 27일 전북도경 기자실에서는 전북 평통사가 주관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평통사에는 이세우, 유승기 공동대표님들과 이창근 지도위원, 서동완 운영위원, 정동석 국장, 조광수 국장이 참여 하였고 전북지역 시민단체대표자들께서도 약 10여명 참여하였습니다.

→ 관련글 : 정전 협정 54주년 맞이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촉구 기자회견

보안수사대 해체를 위한 집회

27일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바로 전주시내에 있는 보안수사대 앞으로 이동하여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보안수사대의 행동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로서 전교, 민노당, 민주노총 등에서 규탄연설을 진행하였고 실천투쟁으로 집회의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보안수사대 정문과 담벼락에 부착하였습니다. 집회를 마칠 무렵 현재 통일교육을 진행하다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형근 교사가 참여하여 규탄발언을 하였습니다.

→ 관련글 : 시대착오적 공안탐압 자행하는 보안수사대 해체 촉구집회

피납자 무사귀환, 과병군 즉각 철군,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촛불집회

31일 전주객사 앞에서 피살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나머지 피납자들의 무사귀환과 과병군 즉각 철군,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여러 가지 일정상 집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전북 평통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이세우 대표님을 비롯하여 조광수, 정동석, 최성훈, 들녘교회 교인들, 전주 새누리교회 교인들, 다함께 회원들 약 3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전주 새누리교회의 양진규 목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국이며 미국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사건이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강력하게 미국을 압박하여 피납자들의 희생을 막아야 하며 만일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일에는 전주고백교회, 새누리교회, 들녘교회 교인들 약 40여명이 객사앞에서 피납자 무사귀환, 과병군 즉각 철군을 촉구하는 긴급연합예배를 가졌습니다. 교인들은 예배를 통해 피살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나머지 생존자들의 무사귀환을 기도하였으며 미국이 이 문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관련글 : 피납자 무사귀환, 과병한국군 즉각철군, 미국규탄 촛불집회

2007년도 익산시민 통일노래 한마당

지난 27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는 익산시민들 약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익산시민통일 노래 한마당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북 평통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통일을 앞당기자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약 80여명이 참여한 치열한 예선을 거쳐 약 13개 팀이 노래자랑에 참여하였고 청보리사랑, 황성택 등의 문화초청공연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상임추진위원장을 맡으신 전병생 전북평통사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615공동선언이야 말로 통일의 이정표이기에 이를 기필코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고 주한미군이 없는,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는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전북 평통사 회원들은 행사장 주변에 설치된 단체 홍보부스에서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사진전을 진행하면서 평화의 씨앗모집운동을 벌였습니다.

광주전남 소식

지난 7월 26일 "한반도 평화협정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평통사 지도위원이면서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인 강정구 동국대 교수 강연회가 100여명(나주 시민회 안희만 국장 추산 120명)의 나주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나주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강연회는 2007년 나주시민 통일대축전 개막과 함께 첫 번째 행사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나주시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최근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평화협정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강정구 교수님은 강연에 앞서 "본인은 미군문제와 평화군축 문제에 가장 전문적이고 실천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 지도위원과 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나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강정구 교수님은 "지금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절박한 정세"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강정구 교수님은 "진정한 평화체제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근본적 소지를 제거하여 공고한 평화상태가 장기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확립된 상태"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조장해 왔던 미군이 철수되고 한미군사동맹이 폐기되어야 한다. 미군철수와 한미군사동맹이 폐기를 전제로 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강정구 교수님은 "지금 미국과 한국정부 등 한미동맹세력은 미군주둔, 동맹유지를 바탕으로 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위협론 및 남한군 열세론, 동북아 세력균형론, 경제실리론과 공미 자폐주의, 보은론 등을 내세우며 주한미군 주둔 불가피론, 한미동맹 옹호론을 주장하는 세력에 맞서 이러한 주장의 허구성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주시민들이 이러한 투쟁에 나서 달라고 호소하시면서 강연을 마쳤습니다.

강연회에 참석한 나주지역의 농민회, 여성농민회, 나주시민회,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민주평통 등 많은 분들이 강연회에 이은 뒷풀이에서 "오랜 만에 우리의 정체성을 되돌아 보는 좋은 강연이 되었다"는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강연회 참석한 배종렬, 김병균 광주전남 평통사 대표님과 최종률 운영위원, 안희만 회원, 김영성 목사님, 김관태 회원사업팀장, 정동석 회원사업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나주지역에서 평통사 회원모임을 추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날 강연회 후 광주지역에서 오신 김현 목사님과 나주사랑시민회 최진연 상임대표님이 평통사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몇몇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갖는 등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 강연 후 회원가입을 하신 김현 목사님

참고로 광주 전남 평통사 8월 모임은 오는 8월 10일(금) 19시 무안 서남부 채소농협에서 있습니다

평통史(2)

홍보팀장 오미정

북의 핵문제와 6자회담, 그리고 평화체제 논의가 마구 쏟아지는 요즘의 정세는, 얼핏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의 중유공급 지연과 공약 불이행, 4자회담, 한반도 평화협정 거론 등으로 이어졌던 95년~98년의 정세와 닮아 있다.

1995년 7월에 있었던 1차 정기총회에서 평통사는 2기 사업계획을 결의하며 “북미 간에 새로운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 군사, 정치 대결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이 가시화되면서 평화협정체결 논의의 진전으로 완화되어 갈 것이며 남북 당사자간의 평화군축, 합의서 이행, 통일방안 대화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남북 해외동포의 거족적인 통일운동의 활성화는 위의 모든 변화를 추동할 근본 동력으로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정세를 전망하고 “조국의 들뜬에 평화와 통일의 씨를 뿌리는 선구자”가 되자고 결의하였다.

이러한 정세인식 속에서 평통사는 95년 NPT 시한 만료에 즈음한 각계인사 300인 공동선언문 “우리는 핵무기 전면 철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1995.4.7)”에 참여하였다. 또한 NPT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NPT 회의가 열리는 시기에 뉴욕에서 개최된 뉴욕 ‘무기확산 저지 국제대회’에 10여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하였다.

당시 해외 평화운동 단체들은 핵 강대국들의 핵군축을 주장하고 있었다. 평통사 대표단은 뉴욕 국제대회에서 ‘동북아 정세와 평화군축’, ‘미군기지와 미군범죄 문제’를 주제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미국 ‘핵확산 정책의 이중성과 뻔뻔함을 신랄하게 풍자한 최병수 작가의 걸개그림 2장 전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때 전시된 최병수 작가의 걸개그림은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 숫자를 의미하는 “9680”이라는 작품이었다.

20개국 71개 단체가 참여한 NPT검토 확대회의 엔지오 철폐회(The NGO Abolition Caucus)는 “핵무기없는 세계는 인류의 공통된 열망이다. 이러한 목표는 소수의 국가들에게 핵무기 보유를 합법화해 주고 있는 NPT 체제로 실현될 수 없다. 우리의 공통된 안전은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를 요한다. 우리는 NPT의 무조건적인 연장을 반대한다. 우리의 목적은 핵무기의 확실하고 무조건적인 철폐이다.”라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평통사도 물론 여기에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 NPT 연장이 결정되었으며, 평통사는 2005년에 개최된 NPT 회의에 다시 한번 참가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이고 이중적인 정책을 소리높여 규탄했다.

▲ 95.4 평화대회에 참가한 임종철 공동대표 뒤쪽으로 최병수 작가의 '9680'이 보인다.

평통사는 평화체제 논의와 더불어 군축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95년 6월에 발간된 회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 6호에는 “한반도가 가야할 길, 군축

(김엘리)”가 실려 있다. 이 글에서 김엘리씨는 “군축은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체제를 마련하는데 필수적이다. 군축은 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군사적 수단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의지이자 실질적인 조치”라며 “과도한 군비증강은 전쟁을 억지시킬 수 없고 긴장과 적대감만을 더하여 전쟁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세계대전 통해 경험”하였고, “군수업자들의 이익만 높”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군사안보전략도 “우세한 전력과 무기를 갖추어 힘의 우세를 통해서만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억지론에서 상대방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안보에도 유익하다는 민족공동안보 개념으로 바뀌야”한다고 주장하였다.

96년부터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의 모임 준비모임” 참여하면서 용산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97년에는 8월에 “한반도 통일정세와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현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강정구 교수는 “한반도 통일정세와 4자 회담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신냉전이 도래하기 이전에 남과 북이 민족공조를 통해 민족통일을 이뤄내는 과업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96년, 97년에 평통사는 조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재적회원은 200명이 넘었으나 실제 애정을 갖고 회비를 내며 활동하는 이는 수십 명에 불과했고, 평화운동의 전문성 부족, 회지발간 역량 등 상근 인력 부족, 회원 활동 침체로 존폐위기에 놓였다. 당시 김영삼 정권의 노골적 반복정책과 북의 유례없는 식량부족 사태, 그 후에 이어진 남의 IMF 사태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 등은 통일운동 진영의 분열이라는 주체적 조건과 맞물려 운동니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상황이기도 했다.

▲ 1997년도 2차 정기총회

2년여 간의 침체기를 거쳐 98년에 들어서면서 평통사는 차츰 자리를 다잡기 시작한다. 1월 3차 정기총회에서 “평화와 통일을 빼놓고는 그 어떤 이상론도 허망한 가치일 뿐이며, 그 어떤 현실론도 평화와 통일을 빚겨가서는 철저히 비현실적인 농담일 뿐이다. 또한 ‘평화’를 내세운 그 어떤 선평화론 또는 현상고착론도 모두 반평화적인 전쟁론의 위장일 뿐이며 ‘통일’을 앞세운 그 어떤 연합론 또는 자기 우월론도 모두 비통일적인 분단론의 연장일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평화로 열어나가는 통일, 통일로 이루어내는 평화’만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가 어울려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길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통일운동을 심화시키는 평화운동, 평화운동을 일으켜 세우는 통일운동에 우리 자신의 역량을 힘껏 기울이고 더욱 더 많은 동지들의 뜻과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2월에는 대표 수련회를 열어 “새 정권의 출범과 평통사의 과제”를 주제로 평통사의 조직을 확대하고 활동을 강화할 방안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홍근수 상임대표는 “올해에는 기필코 평통사를 활성화시키자고 다짐했다. 90년대 평화 통일운동의 중심축을 이뤄온 우리 평통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여 한편으로는 새 정부의 평화 통일 정책을 독려하고 한편으로는 견제 비판하면서 민간통일운동을 앞장서자”고 하였고, 문규현 상임대표는 “새 정권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도 재야에 있는 우리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공동대표들도 군축운동, 북동포돕기운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조광수 현 전북평통사 사무국장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던 전북 지역의 '평화와 통일을 일궈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통합하는 쾌거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서울에 이어 전북지역에 평통사 조직이 탄생한 것이다. 이즈음 김성윤 목사 등 젊은 이사들(운영위원)이 결합하는 등 조직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계속)

▲ 1998년 2월 대표 수련회